문학교육과 허구적 인식능력*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를 대상으로—

우한용**

Ⅰ. 문제를 찾아서

소설이 허구적 텍스트이고 따라서 소설의 이해는 허구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진부한 논의가 되기 십상이다. 이미 '통념'이 되어 버린 개념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신선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라든지,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 등의 소설을 대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물론 이러한 소설을 특별히 '대체역사소설'이라는 하위 장르명칭으로 부른다고 해도, 그러한 소설을 허구로 인식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더구나 소설 일반의 속성으로 허구성을 강조하는 교육의 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 이 논문은 2004년 12월 17일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4년도 연구보고대회의 발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당시 토론을 맡아 조언을 주셨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남현 교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소설을 허구의 양식이라고 해도, 독자는 소설의 허구성을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인간의 정신구조가 허구와 사실 사이를 넘나들며 텍스트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구조가 소설을 허구와 사실의 스펙트럼을 넘나들며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이를 다시 거론하고 논의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상이 그러함에도 소설의 허구성과 허구적 인식능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소설은 언어적 형상화를 통해 만들어진 언어의 구조물이다. 언어에서 허구개념과 그 기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형상화된 언어인 문학작품과 사실 지시적인 일반 텍스트를 같은 방법으로 읽는 일이 언어의 속성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에서 문학이 문학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환기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언어와 실재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논리를 세우고자 한다.

둘째, 문학의 양식개념과 연관되는 사항이다. 문학이 장르로 분화되고, 장르는 다시 하위 양식으로 분화되는 것은 일종의 법칙이다. 이 분화의 법칙 가운데는 서사문학의 경우 허구적 속성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학-소설-역사소설 등으로 분화되는 양식 속에서 허구개념은 다른 장르[양식]과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 특히 '역사소설'의 경우 텍스트 외적 현실을 반영한다는 가정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허구와 사실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이는 소설의 해석과 연관된 문제로 허구개념을 상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문학교육을 문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문학문화를 수용하는 일은 문학문화 창조를 포괄한다. 문학의 수용과 재창조가 한 '주체'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문학을 수용하는 독자는 잠재적 생산자이며 문화 창조의 주체이다. 이 때의 생산은 두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의미의 생산

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의 생산이다. 이해와 생산의 양 측면에 작용하는 허구적 인식의 양상과 기능을 밝히는 일은, 문학연구에서 좀더 나아가 문학교육과 연관되는 핵심 사항이다.

넷째, 이 논의는 소설을 보는 방법의 전환을 탐지하고자 한다. 실체로서 허구의 여부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를 운용하는 주체의 문제와 허구의 생산이라는 문제를 추구함으로써 생산론적 문학교육의 입론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이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주체성의 생산'이라는 펠릭스 가타리의 관점 수용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문학과 허구성의 관계를 논의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이론 차원에서 제시하고, 문학의 해석과 생산에 작용하는 허구적 인식의 기능을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를 대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1)]

Ⅱ. 관점의 전환 - 문학의 수용에서 생산으로

문학에 대한 관점이 문학 이해의 방향을 결정한다. 문학은 실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독자들의 의식공간에 의미체로 존재한다. 의미는 해석의 결과가 소통되는 가운데 형성되는 문학적 힘의 자장을 형성한다. 문학을 둘러싼 힘의 자장은 관점의 벡터로 작용한다. 관점과 관점의 충돌과 교차 속에서 관점 투쟁의 장으로 문학은 현현한다. 문학에 대한 관점은 문학교육의 방향을 좌우한다. 문학교육의 관점이 다시 문학의 관점을 규율하게 된다. 문학에 대한 관점과 문학교육의 관점은 상호규제적이다.

---

1)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는 삼성출판사 제3세대 한국문학 『이문열』(1983)편에 실린 것과,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51 · 52권(2001) 소재 텍스트를 대본으로 한다. 민음사 판은 삼성출판사 판을 약간 손질한 부분이 있고, 한자를 괄호로 묶는 등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학을 규율하는 관점[통념] 가운데 하나는 문학이 언어현상의 하나이고, 따라서 문학의 해석과 의미는 언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넓은 의미의 구조주의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은 문학의 구조주의를 이어받은 기호론으로 전이되고, 이것이 교육에 구체화된 양상은, 문학이 작가와 독자 사이의 의미 소통을 매개하는 언어적 구조물로 보는 관점이다.

문학은 그 수행 양상으로 본다면 의미의 전달행위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문학은 일종의 언어행위이고 언어행위는 의미의 전달과 수수를 기본으로 하는 '소통'에 중점이 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교육에 등장하는 방법론이 문학 '주제론'이다. 작품의 수용은 주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교육 현장에서, 주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는 중심적인 의미"라고 규정되고 그렇게 통용된다.[2)]

문학이 실현[수행]되는 구체적인 실상을 고려한다면, 문학의 의미가 작가로부터 독자에게 직설적으로 전달되거나, 작가가 생산한 작품을 독자가 소비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앞으로 논의가 될 것이지만, 문학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독서 과정에서 의미의 구성하는 과정이다. 문학을 개념적으로 설명할 경우는 '인식'이 앞설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의 구현되는 장에서는 인식이 중요하기보다는 체험이 앞선다. 문학적 체험은 작품을 읽는 동안, 혹은 작품과 교섭하는 동안 주체의 감동과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런 뜻에서 독서를 '저자와의 대화'로서 규정하는 것은 일부 진실을 담고 있을 뿐이다. 주체와 텍스트의 상호작용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주체성 생산'이 문제되기 때문이다.[3)]

---

2) 교육과정에는 "작품의 주제는 주체, 구조,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됨을 이해한다."고 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1997: 152) 그러나 주제를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적 의미로 설정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현실이다.

의미의 객관성은 다른 방향으로 이론화되기도 한다. 의미의 객관적 전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미 객관성의 요구를 바탕으로 소설이 설명되는 경우가 있다. 소설의 언어 운용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이 논의는 미국식 신비평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웨인 부드가 『소설의 수사학』에서 정식화한 '객관성의 미학'에 바탕을 둔 논의이다.[4] 소설의 리얼리티는 작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해야 살아난다는 것이 그 논지이다. 작가가 설명하거나 요약해서 들려주는 것보다는 자료를 보여주고 그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학상의 객관주의라 할 수 있다. 보여주기(showing)와 이야기하기(telling)의 양분법을 설정하고, 보여주기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온 서양 소설론은 언어 중심의 소설 설명이 한계를 露呈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야기, 소설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작가나 작가의 이미지를 전이해 가지고 있는 화자가, 모든 것을 통합하여 이야기하는 언어 용법(서술 방법)을 운용해 왔다. 문·사·철을 구분하지 않는 전통의 영향도 있을 것이지만, 장르상의 단일성을 유지하는 객관주의 글쓰기가 아니었다. 佛經類의 偈頌이니 傳 끝에 붙은 評이니 하는 것이 텍스트에 부가되어 주관적 의미를 추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서사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각종의 역사서에서도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또한 근대문학의 경우에도 언어 운용 방식이, 앞의 용어를 다시 쓴다면, 이야기하기로 서술하는 경향이 소설사의 한 계열을 이룬다.[5] 문학에서 의미의 객관적 전달을 도모한다는 전제를 일방적으로

---

3) F. Guattari, *Chaosmose*, 윤수종 역, 『카오스모제』, 동문선, 2003 참조 ; F. Guattari, *L'Inconscient machinique : essais de schizo-analyse*. 윤수종 역, 『기계적 무의식』, 푸른숲, 2003 참조.

4) W. Booth, *The Rhetoric of Fiction*, 崔翔圭 譯, 『小說의 修辭學』, 새문社, 1985 참조.

5) 이러한 서술방법은, 판소리에서 창자가 일인 다역으로 수행하는 서술의 복합성을 고려한다면, 판소리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한용(1993)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근대문학에서는 채만식의 경우 언어의 운용 방법은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서술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대화주의를 내세우는 바흐찐의 소설론에서 이상으로 삼고 있는 소설언어의 대화성은 일부 문학에 적용되거나 하나의 요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소설 전반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우한용, 1993). 소설언어의 대화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문학에서 의미의 객관성이라는 문제를 반성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문열의 소설 「황제를 위하여」는 전통적인 서술방법(언어용법)의 전범을 보여준다. 즉 역사 서술의 방법으로서 '춘추필법(春秋筆法)'을 구사하였다는 점, 실록류의 문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연의' 방식으로 서술한다는 점, 그리고 소설의 구조에서 '장회체' 소설의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정감록」의 문투를 이용한 '실록'의 기록법이다. 이들 언어 운용 방식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문학적 관습으로 되어 있어서 익숙하다.[6] 주관적인 의미 해석이 언어 운용의 중점이며, 이미 존재하는 이전의 텍스트를 자신의 텍스트로 옮겨와 다른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좀 성급하게 말하자면 '소설이 소설을 쓴다'는 명제를 가능하게 하는 점이다. 소설가에게 텍스트 이외에 현실은 없다는 극단론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문학 특히 소설에서 의미의 객관성이란 무엇인가를 반성하게 한다.[7]

참조할 수 있다.

6) 최소한 한국에서 고전적인 글을 읽은 독서계층에게는 틀림없이 그러할 것이다. 이문열의 문장이 유장하고 단호하며, 근엄하고 친근미가 넘친다는 것은 그가 우리 문장의 전통에 접맥되어 있다는 점을 환기한다.

7)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에서 구사한 소설의 방법, 즉 책에서 다른 책을 만들어내는 작법을 환기한다(김춘진, 2004). 이러한 언어 운용법은 보편성을 띠는 문학현상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소설의 언어 운용 측면에서, 소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묻게 된다. 소설은, 독자가 읽고 해석하는 수용의 과정에서 독자의 '허구적 상상'이 전면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지니고 있는 텍스트이다. 개방성, 가변성, 진행적 속성 등이 소설 텍스트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한다면 소설의 수용을 '주제론'으로 다루는 것은 경직된 방법일 뿐이다.[8] 소설 텍스트의 속성이나 구조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소설을 읽는 수용자의 주체성이 생산되고 작동되는 구조의 허구적 속성을 부각함으로써 소설을 이해하는 다른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문학의 생산을 고려하는 관점으로 전환이 가능한 소설의 속성이다.

수용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소설을 소설답게 읽도록 하는 것이 소설교육의 목표이다. 나아가 문학을 문학답게 이해하는 것이 문학교육의 목표가 된다. 소설의 소설다움은 소설 장르의 운용 특성에서 연유한다. 소설 장르의 속성 가운데 '이야기(성)'와 '허구성'이 핵심개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용어상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소설을 허구적 서사[이야기](narrative f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엄격한 규정이 되지 못한다. 우리말로는 '허구적 서술물'이 더 적합할지 모른다. 아니면 '서사적 허구'라고 해도 좋을 것이나 우리말 조어법으로 본다면 '허구서사'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용어로 보인다. 그러나 허구서사를 읽어내는 주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텍스트의 허구성에 집착하는 것은 경직된 사고이다. 독자는, 잠재적이기는 하지만, 문화의 생산자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독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작가는 그 문학이 운용되는 문화권의 대표적인 독자들이다. 이는 작가가 되는 과정으로 보거나, 작품을 쓴 과정으로 보거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학을 읽고 작가가 되

8) 비교문학의 주제론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이재선, 2001).

며, 작가가 되어서는 자신의 작품을 포함한 다른 작품을 지속적으로 읽게 된다. 작가는 문학행위를 통해 문학주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텍스트 재생산의 주체인 것이다.[9)]

이상으로 보아, 문학현상의 수행 구도는 달리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전에는 [생산자-텍스트-소비자]라는 도식을 상정했고, 교육현장에서는 [작가-작품-독자]라는 도식이 통용되었다. 그러나 문학현상 가운데 독자의 역할이 잠재적이거나 현시적인 작가, 생산자, 혹은 재생산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자/작가-작품-독자/생산자]라는 구도로 바꿔 생각하는 것이 옳다. 작가가 글을 쓸 때 이전 텍스트에서 많은 영향을 수용함은 물론, 문학의 양식을 물려받아 작업을 하게 된다. 독자 또한 작가가 작품을 쓰면서 고려한 양식을 인식의 틀로 해서 글을 읽는다. 작품 생산의 과정에 작용하는 허구성에 대한 고려는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그대로 작용된다. 소설의 허구성은 작품을 쓰는 데, 작품을 읽는 데 양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를 교육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전의 관점들 가운데 몇 가지가 달라져야 한다. 언어 측면에서 전제하는 기표-기의의 대립성, 내용과 형식의 이원성, 사실과 허구라는 대립성, 주체와 대상이라는 양면성 등이 달리 설명되어야 하는 항목들이다. 이들 양면적 항목들은 의미의 생산과 텍스트의 생산을 아우르는 주체의 문학생산에 모두 포괄되어 들어오기 때문이다.

---

9) 학습자의 경우, 구체적인 학습자를 상정할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 심리,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반화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운 제한이 있다. 문학현상과 문학교육현상이 같은 개념으로 설정될 수 없다. 잠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제도화된 교육에서는 교사라는 매개항이 설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학교육현상은 구도가 달리 설정된다. 그리고 학습자의 사회를 일반 사회와 동일한 구조로 설정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Ⅲ. 소설에서 허구개념의 성립

1. 소설 텍스트의 허구성

소설과 연관된 허구개념은 언어와 사물의 관계를 다시 고려하게 한다. 이는 표현, 재현, 표상 등이 문제와 연관되는 사항이 되기도 한다.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老子의 일절 "名可名 非常名 道可道 非常道"라는 데서 언어와 진리, 표현과 실재 사이의 관계가 정합적일 수 없음은 이미 설파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또한 허구와 사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는 생각은 장자의 "胡蝶夢"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허구의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적 인식과 그 서술의 문제를 양식 차원과 수행의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논의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원론적인 논의에 앞서 통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설이 곧 허구라는 등식은 통념이 되었다는 지적은 올바르다.[10] 그러한 용어법은 영어권의 관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허구라는 용어는 영어의 픽션(fiction)을 옮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설의 허구성을 두드러지게 지적하는 용어법이 일반화되면서, 소설이라는 장르를 그렇게 부른다면 이는 잘못이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는 편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우리 문학의 전통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용어를 가감없이 수용한 수용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용어를 지시의미론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의 관행이다.

문학의 경우, 특히 소설 등을 비롯한 서사의 경우 '허구'를 지시의미론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논리의 한계는 아주 분명하다. 이는 텍스트의 복합

10) 이와 관련해서는 조남현(2004: 81-90)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소설의 허구성과 상상력의 관계를, 서양 소설사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성과 그 텍스트를 수용하는 주체의 의식의 복합성에 기인하는 점이다. 소설 텍스트의 수용자는 사실세계[실제세계]에 근거를 두고 텍스트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의 의식은 그 자체로 내적 논리를 가지기 때문에 실재와 의식 사이의 일치를 얻어낼 수 없고, 따라서 텍스트에 나타나는 실재와 의식상의 실재[리얼리티]를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허구 논의에서 등장하는 대립항이 '사실'이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라는 것이 소설의 허구성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사실을 소재로 재구성하여 허구를 만들어낸다는 설명이다. 과연 그러한가? 언어의 기능을 외적 대상의 표출로 보는 경우는 그러한 논의가 정당성을 지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언어의 개념들이 재조립된, 그 자체가 허구적이라는 관점 또한 가능하다. '현실'이라는 용어 또한 마찬가지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낱낱의, 그 연관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제각기 있는 것이지 현실이라는 것은 구성된 개념일 뿐이라는 입론 또한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실' 혹은 현실과 허구의 관계를 양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허구개념과 상응하는 것으로는 '환상'이라든지 '상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돈키호테가 풍차를 거인으로 보는 것은 돈키호테에게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실이다. 그런데 『돈키호테』를 쓴 작가와 그것을 읽는 독자에게도 사실인가?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것은 실재이고 따라서 사실이다.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가 자신이 쓰는 이야기를 사실로 인식하고 있다는 보장은 없다. 독자의 경우, 자신이 그러한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은 현상(현실)이고 사실이다. 그러나 작중인물 돈키호테가 사실로 풍차를 거인으로 보았는가 하는 것은, 텍스트의 서술 말고는 확인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돈키호테의 환각, 환상은 실재이면서 허구이다. 이처럼 실재[사실, 현실]과 허구[언어, 텍스트] 사이에는 서로 맞물리는 관계가 성립한다. 작가가

자신이 쓴 소설을 작중인물이 본다든지, 자기 소설을 인쇄하는 인쇄소를 작중인물 자기가 방문한다든지 하는 경우, 그것은 텍스트 내에서 작중인물에게는 사실이다. 그러나 작가에게는 허구이고 독자에게, 독자의 인식상으로는 사실일 수 없다. 이처럼 겹으로 겹치는 허구의 장치 속에서 독자는 그 허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독자가 작품의 허구성을 인식하는 일과 그 인식이 문학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의 문제가 핵심 사항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허구성이 소설의 장르적 속성으로 이해되는 연원은 '이야기현상'에서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구조주의적으로 분석한다면 이야기(스토리)와 담론이라는 두 층위를 상정하고, 그 두 층위의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S. Chatman/한용환 역, 1989). 이는 소설 고유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서사 일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소설의 기본 속성인 서사성[이야기성]을 살피기 위해, 이야기현상으로서의 소설 특성을 살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건'을 전달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이다(우한용 외, 2001). 그런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서술자가 설정된다. 서술자는 실제로 있었던 -있었다고 상정되는- 사건을 축약하고, 확대하면서 다시 정리해야 한다. 실제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론상으로, 그 사건이 전개된 시간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서술에서는 긴 시간은 축약되고,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자면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허구성이 개입된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할 경우, 이야기는 기본 속성상, 지금 수행되고 있는 언어에 비해서는 과거사를 이야기하게 된다. 이야기의 사후성(事後性)으로 인해 그것은 사실 자체가 될 수 없다. 전달되는 사건의 사후성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야기의 현재성은 허구성으로 전환된다.

또한 사건은 단선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일어나

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람의 정리 과정에서 단선적으로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언어 수행의 線條性으로 인해 서술자가 두 사건을 동시에 서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술자의 역할이 가미되는 한 어떤 이야기도 사실로서의 사건 그 자체를 전달할 수 없다. 전달 과정에서 생겨나는 가공절차, 방식 등이 허구성의 진원이다. 여기에 서술자의 시각[의식]이 개입하고, 그것이 이야기의 의미를 규제한다.

이야기 가운데는 사실로 확인 가능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의식의 내면에 잠재된 심리실체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다. 현대소설의 '의식의 흐름'이라든지, 프로이트 개념의 무의식을 다루는 이야기가 그러한 예에 해당할 것이다. 꿈을 다루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가운데는 환상을 다룬 이야기도 있다.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만복사저포기」 같은 것은 일종의 환상을 다룬 이야기라 할 수 있다. '傳奇小說'의 환상성은 그 장르의 특징으로 지적된다(박희병, 1997). 김만중의 『구운몽』은 아예 꿈 이야기를 소설의 구조로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그렇게 뚜렷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남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경우, 그 사실성은 화자 혹은 서술자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만 인식이 가능하다.

실제 인생의 경우, 그것이 자서전을 쓰는 과정으로 비유된다고 하더라도, 지속하는 현재라는 의미에서만 사실성을 지닌다. 인생의 단위를 이루는 사건들이 실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면 서술자의 개입과 시간적인 과거성의 획득으로 인해 곧바로 허구가 된다. 있었던 일, 실재를 서술한다고 주장을 해도, 최소한 허구적 속성을 함유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화자/서술자는 신빙성은 높을지라도 사실을 전하는 언어적 매개자로서 지니는 허구적 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

인생의 가치나 의미를 따지는 지점에서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자신이

살아온 과정이 환상이었나 실재였나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은 自省, 혹은 성찰(retrospection, reflection)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허구 서사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은 성찰의 지점에서 허구로 전이된다. 누구라도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삶의 의미를 따질 때, 즉 반성적 차원에서는 살아온 삶을 부정할 수도 있다. 허구 속에 살았다는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닌 세계 곧 허구의 세계를 살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한 인간의 일생은 허구가 되어 버린다. 허구 자체가 사실이다. 인물의 반성 그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만, 한 인간의 생애가 환상에 불과했다는 평가는 또한 사실이 될 수 있다. 허구가 가치개념과 연관되는 것은 이 지점이다.[11]

2. 소설의 독서과정과 허구성의 인식

독서 과정은 해석의 과정이다. 해석의 과정에서 텍스트의 구성과 속성이 허구인가 아닌가를 인식하는 것은 잠재적 과정으로 실현된다. 소설이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양태 특성상, 소설 텍스트를 읽으면서 '진실성'을 근원적으로 의심하지는 않는다. 독자는 일종의 문화적 문법을 따라 소설을 읽는다. 허구와 진실의 변증법을 이미 실천의 구도로 전제한다.

소설의 독서는 소설의 해석 이전에 이야기 읽기라는 기본 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의 독서에서 서술자의 문제는 본질적이다. 서술자가 사실적 속성을 띠는가 아니면 허구적 속성을 띠는가 하는 데 따라 읽

11) 돈키호테의 경우, 편력기사로 살아온 생애가 쓸모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없게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동시에 알게 되면서 이 소설은 아이러니적인 구조를 이루게 되고, 거기서 소설적 진실이 드러난다. 이는 자신이 모델로 삼았던 아마디스 데 가올라를 그의 의식상에 부각시켰던 기사소설이, 「돈키호테」라는 허구를 통해 부정되는 순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G. Lukács/반성완 역(1998)과 R. Girard/김치수·송의경 역(200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는 방식이 달라진다(최병우, 2004).

소설에서 서술자가 허구적 존재라는 것은 전제사항이다. 김동인의 「붉은 산」에서 서술자로 등장하는 나[여-余]는 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인의 이력과 상관이 없고, 서술자가 작가 김동인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 그러나 그러한 서술을 직접 행한 인물은 김동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작가가 내세우는 서술자에 대한 믿음과 이야기 양식의 문화로서의 공감력으로 인해 허구적 서술자를 실제 서술자 혹은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시하게 된다.

그런데 작가가 자기 소설을 허구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경우도 독자는 허구로 읽는다. 이 또한 서술자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인데, 서술자의 신빙성 여하에 따라 허구성이 인식되는 정도는 달라진다. 또한 양식에 따라 허구성이 인식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사실주의적 소설과 모더니즘 소설의 경우 허구성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현실의 반영을 주지로 하는 사실주의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모더니즘 계열 소설의 경우, 서술자의 신빙성은 약화된다. 그러나 이는 정도의 문제이지 본질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작가의 존재가 실재작가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허구적 서사에서 작가는 사라진다. 서술자에게 위임한 권한을 독자는 사실로 수용한다. 그리고 언어의 '통사표지'를 '권력표지'로 옮겨 놓는다(F. Guattari/윤수종 역, 2003: 49).

이야기 읽기는 작가라는 존재가 사라진 자리에 서술자의 권위를 대신 자리잡게 하고, 그 서술 내용을 경험으로 수용하는 과정이다. 경험으로 수용하는 내용 가운데 중심적인 것은 텍스트 인물의 행동, 의지, 시도, 좌절 등이다. 이 가운데는 욕망의 발생과 성취, 그리고 좌절이 함께 포함된다. 소설의 인물이 실제 인물로 전환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텍스트 상의 소설 인물이 실제 인물로 전환되는 것은 문화문법에 따르는 실천을

통해서이다(B. Hochman, 1985: 59). 여기서 소설가와 역사가가 삶의 과정에서 하는 일이 공통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 인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는 그 공동체의 과거 속에 놓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는 인간의 의식이라는 영원한 차원 속에 존재하며, 인간 사회의 제도, 가치, 그리고 그 밖의 패턴의 불가피한 구성요소이다. 역사가의 과제는 '과거의 의미'의 본질을 사회 속에서 분석하고, 그 변화와 이행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E. J. Hobsbawm/강성호 역, 2002: 31).

독서과정을 통해 독자는, 작가가 사라진 허구적 이야기 속에서 역사서사에서 만나는 작가의 존재를 텍스트 안으로 이끌어들인다. 김동인의 「감자」에서 복녀라는 인물을 현실 속의 인물로 이해하는 것은, 그리고 이를 현실적 인물로 놓고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소설독서의 문화적 실천 과정을 통해서인 것이다.

앞의 인용에서, 과거란 타자화된 현재라는 의미를 지닌다. 텍스트의 인물이 보여주는 행동과 지향하는 의지와 각종의 시도가 성취되고 좌절되는 것을 현실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은 허구적으로 설정된 믿음에 근거한다. 이처럼 소설의 장르적 속성인 허구성이 개별 독자에게 인식되고 육화되는 것은 낱낱의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이다. 이 과정에서 소설의 몇 가지 속성이 동시에 인식되는 것일 터이다.

소설의 장르상 특성으로 '형성 중인 담론' 혹은 '전이적 장르' 등을 들기도 한다.[12] 이러한 특성이 곧장 허구성과 연관된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확정적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성 중인 현상을 언어로 서술하는 경우, 그것은 언어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논리가 진행될 수 있다. 진리치의 준거를 자체 안에 지니고 있는 특이한 방식의 언

---

12) 이와 관련해서는 M. M. Bahktin/Michael Holquist(eds.)(1981)를 참조할 수 있다.

어운용을 소설 담론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언어에 대한 언어, 즉 메타언어적 언어운용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반영이라는 논리를 벗어나는 언어영역이다. 소설로 소설 쓰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메타픽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 운용이 소설 담론의 특징인 것이다. 따라서 소설 양식의 전이적 성격은 허구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다른 특성으로 소설의 '잡박성- 대식가적 포괄성' 등을 들기도 한다. 소설 안에는 다른 문학 양식 어떤 것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소설의 언어는 특정 기준으로 보증되는 진리치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게 된다(R. Bourneuf & R. Ouelet/김화영 역, 1986).[13] 이는 진리의 대응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언어의 운용영역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러한 언어를 읽어내는 방법은 독자가 소설이라는 담론체와 전면적인 대응을 하는 중에, '주체성을 생산하는' 운동 속에 들어가게 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우리는 수동적인 재현 이미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화의 벡터 앞에 있다. 우리는 실제로 비담론적인 정념적 지식[인식]과 맞닥뜨리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사람이 능동적으로 만나는 주체성으로, 전적으로 복잡하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흡수하는 주체성으로 나타난다(F. Guattari/윤수종 역, 2003: 42)." 텍스트상 언어의 복합성, 따라서 의미의 복합성은 물론 문학현상 가동주체로서 주체의 의식 내면에서 생성되는 의미는 단선적이거나 확정적일 수 없다.

이야기 장치로 동원된 허구는 '남'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야 서술자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서술자의 책임을 벗어난다는 것은 소설적 자유의 획득을 의미한다. "신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니체의 명제를 소설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허구성으로 인해 역사 기록자의 책임, 진리의 전달

13) 이는 소설 언어의 이질언어성[잡박성; heteroglosia]을 특징으로 설명하는 바흐찐의 인식과도 상통하는 점이다.

이라는 책임을 벗어날 때이다. 「황제를 위하여」의 경우, 「돈키호테」의 경우, 허구와 허구가 겹쳐진다. 허구가 허구 속에서 중첩적으로 실현되도록 구성하는 데는 자유 획득의 방법으로서 허구의 의미가 잠복되어 있다.

허구성, 특히 소설과 연관된 허구성은 이제 소설 장르의 대전제가 되어 그 논의가 주춤해진 감마저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소설의 서사성(narrativité)'이라는 문제와 연관되는 사항이라서 비켜갈 수 없는 일이다. 서사성에서 연유하는 시간적 과거성이 소설의 허구성을 도출하는 근원이다.[14] 이 과거성은 앞에서 본 대로 가치와 연관되고 미학과 윤리로 연계된다.

허구라는 인식 자체는 실재한다. 따라서 허구적 언어의 실재성까지 의심할 수는 없다. 허구의 존재 여부를 따진다든지, 허구와 진리개념의 연관 문제라든지 허구의 가치 관여적 속성 등을 길게 논하기는 번거롭다. 다만 허구성과 그 인식은 소설을 수용하고, 소설을 창조하는 데에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밝혀진 셈이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소설을 읽은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감동과 인식'을 확인하려는 것은 성급한 기대라는 점이다. 다른 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소설에서 얻는 감동이나 인식의 변환은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것이며, 생애 전체를 통한 실천의 과정에서 자기생산을 지속하는 속성을 지닌다. 해석의 결과가 곧 행동으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한 교육적 처치가 가설적 모델로 구성될 수는 있어도 실증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학교육의 아포리아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설계한 허구성의 구조를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를 바탕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앞으로 「황제」로 줄여서 쓰기로 한다.

---

14) 이는 리쾨르의 개념으로, 그의 『시간과 이야기(Ⅰ-Ⅲ)』(김한식 외 역, 1999/2000/2003)를 참조할 수 있다. 그밖에 석경징 외(1997)도 참조할 수 있다.

Ⅳ. 텍스트의 허구성과 인식의 구체상

1. 텍스트의 허구성

소설 텍스트가 허구성을 지닌다는 것은 텍스트의 존재 양상에 바탕을 둔다. 이는 텍스트의 다른 텍스트와 연관되는 텍스트 연관성과 관련이 있다. 소설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텍스트를 담론 안으로 이끌어들여 다른 담론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담론의 실천 양상이 소설이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17세기 스페인의 세르반테스(1547-1616)에서 발견하게 된다. 『돈키호테』의 경우 당시 유행하던 기사소설들에 대한 패러디이다. 패러디란 어떤 텍스트에서 유의미한 다른 텍스트로 전이된 텍스트 형성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당시 유행한 기사소설 「아마디스 데 가울라」가 『돈키호테』와 텍스트적인 맥이 닿아 있다. 인류에게 이상이란 무엇인가? 환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현실(실재)과 허구의 관계에 대한 탐구로, 서구 소설의 연원으로 평가되는 이 소설이 일찍이 포스트모던한 속성을 보였다는 것은, 허구성과 연관하여 의미깊은 일이다(나송주, 2003: 196-197).

여기서 우리는 『돈키호테』의 작가가, 서술자를 중간에 바꾸는 문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라비아의 역사가인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쓴 돈키호테 데 라만차의 이야기'를 번역해 듣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박철 역, 2004: 116).[15] 허구 속에 허구를 만듦으로써 현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비판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

15) 여기서는 시공사에서 펴낸 박철 역(2004)의 『돈키호테』를 참조하였다. 작가는 이 소설이 역사가의 역사 기록처럼 읽히기를 강조하고 있다. "역사는 진실의 어머니이며 시간의 그림자이자 행위의 축적이다. 그리고 과거의 증인, 현재의 본보기이자 반영, 미래의 예고인 것이다(박철 역, 2004: 17-18)."

따라서 이 작품은 당시 기사도의 타락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님은 물론 '기사소설'에 대한 비판이라는 의미를 지니다. 이처럼 서술자를 이중적인 허구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허구 기능이 극대화된다. 소설의 허구성이 비롯되는 단서는 서술자의 설정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황제」는 이렇게 시작된다.

첫 장은 '카프리치오의 서장'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는 광상곡으로 번역되는 음악 양식이다. 작품을 한 편의 광상곡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출발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재작년 내가 어느 시덥잖은 잡지사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p. 9)."[16] 잡지사 기자로 설정된 서술자 내가 부장의 특집 기획 계획에 따라 「신역 정감록」을 읽고, 사이비종교 집결지인 계룡산 신도안에 갔다가 거기서 만난 덕릉의 능참봉 우발산(牛拔山)에게서 실록[白帝實錄]을 얻어 보게 되고, 그 실록에 기록되었던 사실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 작품이 소설이고, 소설 가운데 대체역사소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는 것은 소설을 서사 텍스트(le texte narratif)로 환원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 위해서이다. 소설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우 '서구, 근대, 장편소설'이라는 사항이 전제된다(김윤식, 1981). 그러나 우리 소설사에서 나타난 실제 작품을 논하는 데서 그러한 전제는 또한 한계가 있다. 장르 개념의 소설에서 '서사 텍스트'로 접근하고자 하는 논의들은, 소설이라는 장르가 역사적으로 실현된 실제 장르[17]의 한 현상일 뿐이라고 본다. 장르로서의 소설을 중심으로 특정 소설을 연구할 경우, 분

16) 이하 인용문은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제1권, 제2권)(민음사, 2001)'의 쪽수를 밝힌 것이다.

17) 토도로프는 『환상문학서설』에서 이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르와 문학사적으로 나타난 장르를 구분하여, 역사적 장르 / 이론적 장르로 대립되는 체계로 장르의 문제를 해명하고 있다.

류의 일정한 원칙을 세우기 어렵고, 따라서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소설은 서구의 한정된 시기에 출현한 장르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서정철, 2002). 그렇다고, 소설을 그 속성을 중심으로 하여 '허구적 산문(prose fiction)'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식주의적인 방법이 드러내는 일반적 한계를 지닌다(N. Frye, 1957). 장르로서의 소설이 아니라 '허구적 서사물'(혹은 허구 서사 텍스트) 가운데 특별한 영역으로 분류되는 양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개념의 혼란을 피하는 방법이다.

약간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소설의 텍스트적 속성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의 속성이 "현실 반영이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하고 재현함으로써 그 현실을 새로이 조명한다."는 견해가 그것인데(서정철, 2002: 23), 이에 따르면 "이야기는 실제 세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텍스트에 의하여 구성된 세계로서,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닌 채 실제 세계를 창조적으로 보여준다(서정철, 2002: 23)"는 논리로 나아간다. 이런 견해는 다소간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달리 보면 '실제 세계'와 '구성된 세계'라는 양분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도식성도 보인다. 이러한 논리를 「황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 텍스트 안에 그려지는 세계 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사학적 전통과 연관되는 관점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반영론의 논리를 생산론으로 전환해야 「황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황제」는 텍스트의 생산에 작용하는 허구적 상상력은 「정감록」이라는 텍스트를 전제한다. 「정감록」은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예언서의 일종이다. 이본이 40~50여 종이 될 정도로 널리 퍼졌던 비기이다. 「정감록」이 민간에 유포되었던 것은 실제이고 사실이다. 그러나 정감록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예언서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속성을 지니듯이 '허구'이다. 그런데 그 허구는 민간의 '이상'을 그리고 있다. 이 이상은 미륵신앙 등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개벽사상의 형태를 띤다.

이미 있는, 따라서 과거의 텍스트라 할 수 있는 정감록에 그려진 세계는 미래세계이고, 그것을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미래세계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정감록은 있다', '비기'는 있다, 이 소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실록 즉 '백성제 실록'은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 사라진 실록을 작가가[서술자] 역사가의 의무로 기록하고, 그 결과 「황제」라는 텍스트로 생산되어 나왔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텍스트의 있고 없음의 상호 참조 작용 가운데 「황제」는 생산된 것이다.

소설은 소설가가 작품(텍스트)을 통하여 사회를 반영하고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서 다른 텍스트로 전이될 뿐이다. 소설이 소설을 쓰는 것이다. 소설 텍스트의 허구성은 서술상에서 '고전 언어 베끼기'라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구체화된다.[18]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된다. 하나는 역사서술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글을 옮긴다는 것, 베껴쓰기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텍스트를 만들어서 현실과는 이중으로 거리가 생긴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다.

> 지금까지 황제의 출생을 얘기함에 있어 나는 주로 기억할 수 있는 실록의 원문과 능참봉 노인의 해설에 의지했다. 따라서 서술 형식과 용어는 자주 낯설고, 케케묵은 고사(故事)의 인용으로 이야기는 지루하다. 거기다가 철저하지 못한 논리나 엉뚱한 감정의 비약은 읽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데마저 있을 것이다. 모두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신의 목소리로 얘기하겠다(권1, 34-35쪽).

서술자의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그 방법이 동양의 역사 서술의

---

18) 이와 관련해서는 김현(1983)의 435쪽 이하를 참조할 수 있다.

전통으로 되어 있는 '춘추필법'이라는 점을 들어, 서술 방법이 역사서를 베껴쓰고 있다는 믿음을 강조한다. 이는 소설 속에 소설 쓰는 방식을 이야기함으로써, 서술자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면서 구성에서는 이중으로 허구화를 시도하는 방법이다.

> 그러나 황제의 사관(史官)은 스스로 말했듯이, 태사공(太史公=사마천), 문열공(文烈公=김부식)의 재주와 문장은 없었으나 춘추(春秋)의 필법(筆法)만은 제대로 본받은 것 같다. 그들은 조그만 의심도 없이 황제의 출생에 얽힌 여러 가지 상서로운 일을 기록함과 아울러 그 적대자들의 말도 기록하기를 잊지 않았다(권1, 35쪽).

소설 텍스트의 허구성은 서술자의 설정과 그 서술자가 취하는 관점에 의해 생겨난다. 서술자의 관점은 서술 내용에 대한 독자의 평가를 달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서사학의 핵심어 가운데 하나가 된다. 서술자의 관점, 즉 관점의 설정은, 타자적 시각, 일반인의 시각 혹은 통념과 다른 시각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실록'의 내용에 대한 믿음을 유도하는 장치가 된다. 서술자의 관점이 황제를 철저히 옹호하는(pro, pour) 방향으로 정향되어 있다. "제왕의 핏줄기는 범인(凡人)과 달라, 혹은 하늘에 이어지고 혹은 천년 전에 미리 정해진 성씨(姓氏)를 따랐다.(권 1, 28쪽)" 그러나 서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서술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다. 그것은 '연의 형식+춘추필법'이라는 이중구조를 구성하는 것이다.

> 그런데 나는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에 이르게 되었다. 황제의 그 여정에 대해 실록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발산 노인도 별로 언급하지 않아, 나는 황제의 적대자들이라고 불러도 좋을 몇몇 사람의 구전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까닭이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본의 아니게 황제의 위엄에 상당한 손상을 가져올 몇

> 편의 짤막한 얘기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공자께서는 춘추(春秋)를 찬(纂)하심에 있어 비록 호칭과 표현에 차이를 두었으나 자신의 군주인 노후(魯侯)의 비행(非行)조차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이 비록 연의(演義)의 형식이지만 나 또한 그 필법을 따르고자 한다(권1, 113쪽).

연의 형식을 빈다는 것은 일종의 패러디 수법을 동원한다는 의미이다. 패러디를 이용한 텍스트 구성은,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변형'이라는 규정을 넘어서는 양식사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L. Hutcheon/김상구 · 윤여복 공역, 1992). 패러디는 기본적으로 반영의 자기 귀속성을 드러낸다. 리얼리즘 소설은 현실의 재현, 비판, 풍자 등을 지향한다. 이는 소설 텍스트 외에 실제 세계를 상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패러디는 대상으로 상정하는 실제 현실이라는 것이 텍스트 자체이거나 텍스트상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는 사물에 대한 언어가 아니라 언어에 대한 언어이다. 「황제」의 주인공은 자기 나름의 공부를 통하여 박식해진다. 그 박식함을 가지고 다른 텍스트를 비판할 경우 패러디가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텍스트는 이전의 맥락에서 일탈되어 다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일제에 대한 비판, 공산주의에 대한 질타, 6.25를 해석하는 방식 등에서 그러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서술 방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메타언어적 기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제 현실(사실)에 대해서 허구적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 지금까지는 서술의 편의상, 또는 상식과 합리에 절여진 우리들 범인(凡人)들의 몰이해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뜻에서, 나는 황제를 위한 일체의 존칭 격조사 겸양 및 존경 보조어간 등을 생략해 왔다. 그러나 이제 큰 깨달

음을 얻어 진정한 황제로 승화하는 마당에서조차 그 같은 불경을 계속하여 저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권 2, 245쪽).

글쓰기 방식을 노출함으로써 텍스트의 존재 층위를 하나 더 설정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서술방법을 노출하는 것은 '서술자의 전권'을 바탕으로 해야 가능한 일이다.

2. 독서과정의 허구성 인식

소설의 독서과정은 자주 논의되었으나, 허구적 서사물인 소설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이는 해석학적 과제이기도 하고, 기호학이나 독서론의 과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가 간단할 수 없는 이유는 문학의 '의미'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문학에서 의미의 문제는 문학이론의 핵심 사항으로 부각되어 왔다.[19] 문학이론에서 의미의 문제는 신비평에 바탕을 둔 자율성 이론, 이론언어학에서 비롯된 기호학적 이론, 언어행위론에서 촉발된 의도이론 등이 주류를 형성한 이론들이었다(S. H. Olsen, 1987: 53-72). 그러나 해석학의 발달과 철학 편에서 의미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를 진척한 결과 그러한 이론들은 연구사의 한켠으로 물러앉게 되었다. 올슨이 지적하고 있는 바처럼 문학이 언어적 구조물이라는 점과 함께 그것이 예술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평명하게 인정하는 자리라야 효과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19) 이와 관련해서는 W. Ray/임명진 역(1988)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레이는 문학을 설명하는 현상학적 방법과 구조주의적 방법을 대비시키면서 제3의 통합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철학 편에서는 의미의 문제를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큰 방향으로는 3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실증주의적 입장에 기반한 지시이론, 현상학적 입장에 기반한 현시이론, 구조주의에 기반을 둔 기호이론 등이 그것이다(이정우, 2003: 107). 『사건의 철학』에서 이정우는 이러한 이론들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고 나서 들뢰즈 중심의 '사건의 의미론'을 소개하고 있다. 사건의 의미론에서 규정되는 의미는 사건과 동의개념이 된다. "사건이 발생할 때 의미 역시 발생한다. 사건이 바로 의미이다(133)." "의미라는 것은 기호들의 놀이도 아니고, 주체에 의해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시대상이나 지시 그 자체도 아니다. 이 세계가 운동하면서 배출하는 사건과 더불어 발생하며, 바로 그 발생을 통해 문화의 가능성을 탄생시키는 그런 두 얼굴을 가진 존재가 의미이다(134)." 의미의 언어적 조건에 대해 "의미란 사건과 더불어 발생하지만, 동시에 언어로 포착되어 기호화됨으로써 언표 안에 존재하게 되는 무엇이다(135)." 이는 들뢰즈의 의미론을 바탕으로 설명을 한 것인데, "들뢰즈의 의미론은 기호의 의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차원이 존재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경계면에서의 사건-의미를 뜻한다(137)."고 설명한다.

소설이 사건을 서술하는 허구적 서사라는 점에서는 사건의 의미론을 참조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다 하겠지만, 그것이 언어예술의 한 영역에 속하는 소설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검토하는 「황제」가 특히 대체역사로서의 소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상에서 살핀 의미론 차원의 논의는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사건을 단일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는 문제가 있다. "나폴레옹이 왕관을 썼다."는 사건은 소설론에서 서사단위에 해당하는 모티프 같은 것이다. 이를 사례로 들어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맥락과 다중적인 시점으로 구성된 소설의 의미를 고구하는 데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위의 철학 편의 논의에서 사물과 언어의 관계에 개입하는 허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왕관'은 이미 상징성을 띠는 문화물이라는 허구성을 띠는 언어이다. 그것이 왕관이 아니고 월계관이나 중절모자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다른 사건이 된다. 사건론이 적용 가능성을 지니자면, 허구적 서사에서 언어가 운용되는 이중적인 허구화의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소설에서 텍스트에 이끌어들이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라기보다는 허구적으로 구축된 서사(텍스트)를 다시 허구의 맥락으로 이끌어들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사건이 이루어지는 층위가 이중적이라는 점, 텍스트 내적 사건과 텍스트를 읽는 그 자체가 사건이라는 이중성이 의미의 단일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층적으로 허구의 층위화가 이루어진 텍스트를 읽는 방법, 그 의미를 탐지하는 방법이 언어논리나 화행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러면 소설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점을 허구의 틀, 허구적 인식의 틀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기로 한다. 소설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할 경우 그 의미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허구 텍스트로 독자가 개입해 들어가는 과정을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의 독서 과정에 허구성이 개입된다는 것은 텍스트의 허구성으로 인해 의당 가정할 수 있는 점이다. 독자가 소설을 대하면서, 좀 막연하지만 각종의 외적 표지로 인해,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소설이라는 사실로 해서 소설적 규약을 수용한 자리에서 소설 독서가 시작된다. 다른 말로 '假構의 틀 만들기(fictional frame making)'를 스스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승인하고 소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카프리치오 서장'이라는 제목이 붙은 서장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

서술자는 잡지사 부장의 권유로 '말세론'과 연관된 정감록을 읽고 계룡산으로 취재를 갔다가 사이비종교의 본산이라는 신도안에 들러 취재를 하는 중, 남조선국(南朝鮮國) 태조(太祖) 광덕대비(光德大悲) 백성제지릉

(白聖帝之陵)이라는 비목을 발견하고, 그 무덤의 능참봉이라는 우발산이라는 노인을 만나고, 그에게서 백제실록(白帝實錄)을 얻어보고, 그 내용을 '사명감' 때문에 자료를 보충하여 연의 형식으로 기록한다는 것이다. 그 사명감은 역사를 서술하는 사관의 사명을 방불케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 그러다가, 그 뒤 오래잖아 그 잡지사를 그만둔 내가 금년 봄 우연히 계룡산에 들러 그 노인의 죽음을 알게 된 후에야, 문득 어떤 형식으로든 그때 읽고 들은 황제의 일생을 기록해 두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노인은 죽고, 실록도 찾을 길이 없는 지금, 황제를 알고 그 삶을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는 나뿐이므로. 다만 한 가지 한스러운 것은 내 부족한 기억력 때문에 실록 그대로를 재현하지 못하고 기억나는 구절과 뒤에 채집한 구전(口傳)을 바탕으로 연의(演義)의 형식을 취하게 된 점이다(권 1, 24쪽).

독자 가운데는 작가 이문열이 정말 잡지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계룡산을 찾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 독자들은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서술자 '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의도적으로' 제쳐 둔다.[20] 그것이 소설적 컨벤션(convention)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컨벤션은 그 자체로서 문화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 글이 허구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일은 텍스트 차원에서 검증할 수 없는 일이다. 「황제」가 허구서사라는 인정은 문화적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문화적이라는 것은, 독자에 따라 양적 질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독자들의 공유하고 있는 '문화자본'을 뜻한다(P. Bourdieu/하태환 역, 1999: 167-173). 문화자본이란 문화를 공유하고 그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 실천

20) 이는 문학을 접하는 이들의 보편적 심리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코울리지가 강조하는 '의심의 자발적 중단'이라는 심리적 승인 가운데 문학독서가 수행되느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타리의 개념으로는 역능(puissance)에 가깝다(F. Guattari/윤수종, 2003). 이는 최소한 '종말론', '정감록', '미륵신앙', '계룡산', '용화세계', '연의 형식' 등의 어휘로 대표되는 문화내용을 독서과정에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한 의미소통의 맥락에 독자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텍스트를 허구로 인식하는 데는 그만한 문화능력이 선결 과제가 된다. 이러한 문화능력이 결핍되어 있을 때, 이 소설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의 의미를 이해하기 또한 난망이다. 그런 점에서 운동으로서의 독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형성은 텍스트 내적 외적 연관을 주체 안에서 이루어내는 총체적이고 역동적인 존재의 폭발이다. 그것은 "우리가 생산함과 동시에 찾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만드는 순간부터 항상 거기에 있었던 무형적 본질체(entité)의 영역들(앞의 책, 31쪽)"로서 혼돈과 창조가 분출하는 분화구 같은 것이다. 거기서 텍스트를 자기 안에 수용하고 변형하여 자기를 다른 존재로 변용하는 주체성은 생산된다. 이 주체성에는 정서, 의지, 역사, 세계 등 주체성을 형성하는 제반 요인이 포함된다.

소설이 인물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점에 주목하면, 그것은 인물이 벌이는 사건의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소설의 인물은 허구적 표상으로서의 인물이다. 독서 과정에서 인물의 허구적 속성은 두 측면으로 작용한다. 하나는 허구적 속성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게 된다는 점이다. 소설의 맥락에 따라 인물의 사실성, 실제성을 인정하고 그 인물과 심리적 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허구성을 제거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허구성을 환기하여 인물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점이다. 인물의 행동이 일상성을 벗어나는 경우, 경험측(經驗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논리화가 안 되는 경우, 그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허구성을 의도적으로 환기하게 된다.

"……신민(臣民)들은 아직도 새 하늘이 열렸음을 알지 못하고…… 신은

늙어 능참봉의 직을 감당키 어렵고, 슬하엔 자식도 없어…… 향화(香火) 영영 끊어질까 저어하나이다……"

흔히 알고 있는 정격(正格)의 제문은 아니었으나 그걸 읽고 있는 노인은 울고 있는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 얼마간 희화적인 기분으로 듣고 있던 나도 원인 모르게 숙연해졌다. 차차 노인의 목소리에 흐느낌이 섞여 들었지만, 예민해진 내 귀 탓일까 알아듣기에는 더 분명해졌다.

"바라옵건대 폐하, 명년 황기(皇忌)에는 향화 끊이더라도 노신의 불충(不忠)을 나무라지 마소서, 그때는 이미 노신의 혼이 황천을 나르고 있을 때이오니, 머지않아 폐하 곁에 이를 것이옵니다."

완연히 흐느낌으로 변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원인 모를 숙연함은 점차 큰 전율과 감동에 빠졌다. 무덤 속에 누워 있는 이가 누구이든 비목이 썩을 만큼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토록 노인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예사 인물은 분명 아니었다(권1, 20쪽).

위 인용에서 '실록'의 저자라고 되어 있는 '노인'을 이해하는 데는 허구 개념이 양편으로 작용해야 한다. 하나는 이 노인의 행동을, 허구 개념을 제한 후 사실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실과 조정하는 차원에서는 허구성을 가미해야, 현재의 지점에서 노인을 텍스트 맥락으로 이끌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소설 읽기는 주체로서 독자가 텍스트에 개입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텍스트의 수용과 비판을 포함한다. 텍스트에 개입한다는 것은 텍스트를 다시 쓴다는 뜻이다. 다음은 서술자가 근대화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다.

서양 오랑캐[洋夷]들이 우리 삼한의 신민에게 옮긴 미신 중에 가장 허황된 것은 과학과 합리이다. 어찌 인간의 짧은 안목이 저 먼 하늘의 일을 살필 수 있으며 그 작은 지혜가 허다한 천지 만물의 원리를 한 가지로 깨우쳐

> 알 수 있으랴. 그 두 미신은 일견 인간의 고매한 정신에서 우러난 것같이 보이지만 실인즉 눈에 보이는 현상만의 질서이며, 물질에 대한 정신의 예속과 굴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오직 그 미신에 얽매여 지난날의 참다운 예지와 아름다움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있다(권1, 30-31쪽).

하나의 관점을 세우고 그것을 강화해 나가 마치 블랙홀과 같은 상태가 되면, 그 관점 이외의 다른 현상, 사건 등은 그 관점과는 소통이 안 되어 결국은 사실의 영역을 떠나게 된다. 이 관점의 절대성이 현실과 텍스트의 허구적 매개를 차단하고 하나의 관점으로 현실을 비판할 수 있게 하는 허구적 가능성을 만들어준다. 대질의 방법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비판이 가능해진다.

> 은연중에 강요된 주관적 사관(史觀)과 몸에 밴 양자택일의 논리로 그 사건에 대한 명쾌한 해설이나 합리적인 기술에 크게 성공하지 못한 동료들조차도 때때로 까닭 모를 악의와 쓸모없는 시비에 말려들어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
> 거기다가 이 글은 처음부터 우리의 황제를 위하여 시작했다. 어차피 정확하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악의나 오해를 일으킬 글을 쓰느니보다는 차라리 초지일관 황제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 나으리라.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남이든 북이든 6·25는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모반(謀叛)이었다(권2, 94쪽).

소설의 독서 과정에서 독자는 허구성을 인식의 장치로 하여 텍스트를 재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허구서사인 소설의 의미를 추출하여 분립된 의미실재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는 텍스트가 의미의 기표일 수만은 없으며, 주체가 기표의 기의를 단일한 의미체로 환원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수

용 구조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점이다.

3. 해석에 개입하는 허구성

소설의 해석은 소설 독서 결과에 대한 의미부여이다. 의미부여는 양식 측면에서, 인물의 해석 측면에서, 읽기와 쓰기의 통합으로서 실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이는 작품에 대한 의미부여이기도 하고, 작품에서 이끌어내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주체는 의식공간에 의미의 팽창과 파열/형성이 일어나는, 플라톤적 의미에서 코라적 존재이다. 이 해석의 과정에 허구성이 개입한다는 것은 허구적으로 의미를 해체/구축한다는 뜻이다. 의미의 층위를 형성하는 작업은 주체의 주체성 생산과 연관되는 작업이다.

양식 측면의 의미부여

소설의 형식이 아이러니적이라는 명제는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잘 알려진 대로 루카치의 용어로 주인공의 지향과 현실의 괴리에서 빚어지는 양식의 특징으로, 염원과 현실적 제약 사이의 변증적 관계를 고려하는 소설의 고유한 법칙과도 같은 것이다.[21] 「황제」의 경우 또한 그러한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황제'의 이상은 하늘의 뜻을 실천함으로서 이상세계를 지상에 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의 이러저러한 여건으로 인해 실현될 수 없다. 즉 그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가치를 추구

21) 이와 관련하여 G. Lukács/반성완 역(1985)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서는 소설의 구조가 아이러니적이라는 것을 "길이 시작되자 여행이 끝났다."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하는 데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현실을 아이러니로 돌려놓는 데에 '허구' 개념이 동원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된다. 현실과는 대척적인 지점에 설정하는 작중현실로 인해, 독자의 독서과정에 독자는 이중의 현실을 체험하게 된다.[22]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아들이 하늘의 뜻을 받았다고 믿는 아버지와 그 아들을 가르친 '큰선생' 사이의 의지의 갈등으로 구체화된다. 주인에게는 이상이고 큰선생이 보았을 때는 '망상'이다. 황제의 부친과 대화는 이렇게 되어 있다.

> "듣기에는 섭섭한 말일 테지만 나는 잘라 말할 수 있소. 주인장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오. 오히려 일찍 버리지 않으면 주인장은 물론 아드님에게도 재앙이 되오리다."
>
> "그러나 그것은 제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하신 일입니다."
>
> "물론 거기 관해서도 나는 들었소. 그러나 주인장이 맨 처음 얻었다는 옛 거울[古鏡]부터 일이 잘못된 것 같소이다. 애초에 그런 것은 없소. 설령 주인장이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윗대의 광기 어린 몽상가나 야심가의 위작(僞作)일 따름이오. 다른 몇 가지도 들었지만 실상은 그 거울과 다를 바 없소. 하늘과는 무관한 것이며, 또 백보 물러서서 하늘의 뜻이라 한들 저 말없는 하늘이 무엇을 해줄 것 같소?(권1, 55쪽)

허구 속에 들어 있는 허구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허구를 구사하는 것이 되고, 이는 애초에 없는 이야기가 된다. 작가는 허구를 구사하면서 그 안에서 허구를 다시 부정하는 양식을 취함으로써 독자의 허구적 인식을 다층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22) 물론 그것은 독서공간이라는 의식상의 매개를 통해서이다.

인물 해석의 측면

소설의 인물이 허구적 인물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없이 승인하는 사항이다. 그것이 소설을 읽는 문화적 관습이다. 이는 인간의 이해라는 문제와 연관된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관념은 마치 자연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우리가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P. Veyne/이상길 외 역, 2004: 290)." 인간의 "행위가 그 시대의 정상성과 일상성을 배경으로부터 떠오른다(앞의 책, 291쪽)."는 주장에 기댄다면, 허구의 인물을 실재 인물로 환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마련된 참조의 구조 안에서 인물을 문제삼을 때, 그 인물의 서사적 정체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소설 인물은 '서사적 정체성'의 형태로 독자의 인식공간에 각인된다.[23] 서사적 정체성은 한 인물의 지속적 성격을 뜻한다. 이는 늘 같은 인물로 이해되는 동일자로서 정체성을 지니는 측면과 남과 공유하고 있는 '성격'으로서의 정체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인물이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하는 것과 그것 자체가 인물의 정체성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같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가 한 인물의 지속적인 성격—이른바 서술적 정체성—을 구축함과 동시에, 인물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플롯(intrigue)만이 역동적 정체성을 구성한다(석경징 외, 1997: 61)."는 것이 리쾨르의 주장이다. 이를 좀 더 살피고 나가기로 한다. 서사적 정체성(l'identité narrative)은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 양 측면을 보여준다. 한 인물의 정체성은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그런

---

23) 이 용어는 다음에 나오는 석경징 외(1997) 편 『현대 서술이론의 흐름』에서는 '서술적 정체성'이라 한다. 서사가 서술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진행적 역동적 속성을 고려하여 그렇게 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물의 대상적 속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서사적 정체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데 시간은 체험이라는 점에서, 현재화된 양태로만 체험이 가능하다. 과거-현재-미래는 기억과 직관과 기다림으로 표상된다. 즉, 기억(과거의 현재) / 직관(현재의 현재) / 기다림(미래의 현재)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현재화된 시간의 세 양태로서, 한 인물의 전체성은 기억과 직관과 기다림 사이에 일관성 여부로 판별되게 마련이다. 여기서 우리는 '총체적 의미'에 개입하는 허구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 그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참조하는 것인데, '민중시대'의 '황제'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근대는 '현재'라는 의미를 지닌다. '민중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움직여가는 시대, 자본과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소설은 이데올로기의 반복, 재생산, 확대 절차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보여주면서 그것의 정당성을 재검토하게 하는 기능을 지닌다.[24] 그렇다면, 민중 시대의 '황제'는 어떤 존재인가? 이 물음에는 다시 소설의 속성을 살펴야 한다.

소설은 양면적 가치를 창조하는 현장이다.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소설은 경계허물기의 근원적 에너지로 작용한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소설이 자기창조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해체하여 다른 소설로 재구성될 수 있는 자료[재료, 질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일 이 글이 소설가 李文烈의 주장을 펴는 '논설'이라면, 실재하는 인물 이문열은 황제를 근거로 보수주의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허구의 양식이기 때문에 「황제」는 경계 허물기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황제」는 근대 허물기를 시도하는 소설이다. 그러나 허문 경계를 다시 마련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것은 다른 시각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근대에 대한 반근대/탈근대의 황제의 세계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독자는 이 소설에서 근대와 반근대를 함께 보아낼 수 있게 된다.[25]

---

24) 이문열이 보수주의자라든지, 따라서 「황제」는 그의 보수주의의 '연의적' 전개라는 식으로 논하는 것은 무리이다.

'황제'의 서사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 허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의 정체성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소명 장' "병신(丙申)에서 갑진(甲辰)까지, 백 스승이 놀라고 헌 이웃이 우러르다. 문 앞이 성시(盛市)를 이루고 인재가 구름처럼 모이다."(권2, 39쪽) 황제의 문 앞이 성시가 되고 인재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는 것은 그 십 년 동안에 순전히 황제만을 보고 흰돌머리 마을로 이주한 집이나 눌러앉은 사람이 몇몇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권2, 49쪽). 실록 식으로, 사실은 정감록을 대본으로 하여, 일의 대강을 서술하고 그것을 해설하는 식으로 전개되는 소설에서, 그의 일생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 그의 일생은 이른바 영웅의 일생을 재현하고 있다. 근대사의 맥락 한켠에 황제의 '제국' 건설과 세계 경영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황제'의 삶의 완성을 그려 보여준다. 황제가 삶의 완성[최후의 승리]을 보여주기 전에 다다른 지점에 '미망'이 놓인다.

> "지금까지 공(公)과 이 몸이 아울러 얻고자 힘쓴 것은 바로 그 달팽이의 뿔에 세운 나라였소.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무사히 삼한(三韓)을 평정하고 요동의 옛땅을 회복한들 저 아득한 우주에 비해 무엇이겠소? 거기다가 지금은 그나마도 제대로 얻지 못해 궁벽한 산곡에서 앙앙불락이었소. 이 몸은 이제 그 미망에서 깨어나고자 하오. 한 조각의 하늘과 한 줌의 흙에 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꽉 차 있어도 있는 데가 없는 우(宇)를 하늘로 삼고 길이길이 있어도 처음과 끝이 없는 주(宙)를 땅으로 삼는 나라를 찾으려 하오(권2, 241쪽)."

다음은 황제의 고유문(告諭文) 끝단락이다.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생

25) 이는 '돈키호테'가 근대 시발기에 창작된 작품이지만, 이미 탈근대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과 맞물린다. 이와 관련하여 김춘진(2004)를 참조할 수 있다.

애를 돌아보며 천지의 이치를 깨달은 자신이 비로소 천제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세계는 허구적 전망으로만 가능한 세계이다. 그리고 이는 근대의 최대 극단의 다른 양상이다. 근대를 미망으로 상정할 때라야 이런 전망이 선다.

> 짐은 이제 나도 잊고 남도 잊고, 크고 작음과 많고 적음도 잊으며 다스림도 잊고, 어리석음과 슬기로움도 잊으며, 잊으려 함도 잊겠노라. 마른 나뭇가지 같고 불 꺼진 재 같으며 흙 같고 바람 같기를 바라노라. 짐이 오늘 구오(九五)의 위(位)로 나간다 함은 바로 이 깨달음을 비유한 말이니, 어여쁜 너 신자(臣子)들아 이 뜻을 알겠는가? 다스림을 잊으니 땅 위에서는 왕중의 왕[王中之王]이요, 하고자함이 없으니 하늘에서는 귀신의 우두머리[天神之首]로다(권2, 250쪽).

황제로서의 정체성, 그것은 동양의 지략과 경륜과 사상을 모두 아우르는, 아울러 행하고 그 위에 높이 올라서서 자아를 초월하는 도교적인 이상의 실현에까지 나아갔다는 점이 서구 소설의 경우와 대비된다.[26] 한 인간의 생이 완성되는 일대기를 다루는 것이 동양 서사의 한 전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황제'는 개인적 삶의 완성이 동양적 전통의 맥락에 연관됨으로써, 리쾨르 개념의 '공유적 자아'의 완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이 점이 '황제'의 개별성이며 보편성이다.

---

26) 돈키호테의 경우, 자신의 과거 행적이 되돌이킬 수 없으매 이를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편력기사로서, 그것이 미망 혹은 妄執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편력이 망집임을 깨달았으되 되돌아갈 시간이 없다. 그러나 '황제'의 경우는 돈키호테의 편력과 유사한 역정을 겪었지만, 결국은 자아성취의 경지에 도달하는 동양적 서사정체성을 형성한 인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글읽기에서 쓰기로

소설 속의 글읽기와 글쓰기는 허구성을 띨 수도 있고, 비허구적으로 형상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황제」에서는 글읽기와 글쓰기가 자주 나타난다. 황제의 독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경신년에 불붙기 시작한 황제의 독서열은 신유년을 거쳐 임술년에 이르도록 꺼질 줄 몰랐다."(권1, 199쪽) 남다른 지식욕을 가지고 있는 황제는 '서책에 몰입하'여 '정신적 도약'을 할 수 있게 된다(권1, 198쪽). 이는 '돈키호테'의 경우처럼 황제의 '위대한 망집'을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

작중인물의 독서는 소설의 허구성과 연관되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소설의 독서는 시간적으로 전개된 이야기를 인식의 내면에 공간화하는 일이다. 이는 의미단위의 계열화이기도 하다.[27] 소설 읽기는 시간적 텍스트의 공간화를 통해, 작중인물들의 행동이 형상화된 텍스트를 매개로 허구의 세계를 그리는 일이다. 그런데 소설 속의 독서는 독자에게, 독서에 대한 독서가 된다. 작중인물의 독서를 텍스트에 한 층 더 설정함으로써, 역사 속에 사실로 존재하는 그 많은 '책들'을 허구의 텍스트 생산의 자료로 삼는다. 이렇게 층을 이룬 책들은 독자의 의식공간에 만들어지는 의미텍스트 생산의 자료가 된다.

맥락은 좀 다르지만, 역사적 서사와 허구적 서사의 통합을 지향하는 리쾨르는 텍스트 구성의 원리로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그는 서사가 만들어지는 구성의 층위를 미메시스I, 미메시스II, 미메시스III으로 구

27) 이야기가 시간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소설의 경우도, 그 양상은 다르겠지만, 시간을 축을 따라 전개되는 이야기를 계열화한 것이다. 여러 가닥의 이야기가 시간의 축에 따라 계열화되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즈네트가 순서, 지속, 빈도 등의 요소로 소설텍스트의 시간적 구성 원리를 설명한 것도 이와 연관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G. Genette/권택영 역(1992)를 참조할 수 있다.

분하고, 각각 의미를 부여한다.[28] 그의 설명은, 현실을 파악하고 글을 쓰고 그것을 읽는[다시 글로 쓰는] 서사 수행의 문화실천의 국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일반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가 설정하는 세 층위의 미메시스는 다시 전형상화, 형상화, 재형상화라는 용어로 설명되기도 한다. 전형상화는(préfiguration)-M I- 현실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다. 현실이란 서사에 반영되어 들어오는 세계인데, 이는 분열과 무의미를 극복하고 의미를 찾아 나아가는 실천을 동반한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이 영역에 속한다. 소설은 타자의 세계 발견이라는 점에서 허구의 가로막 저편에 놓이는 텍스트가 된다.

형상화(figuration)-M II- 이는 형상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일이다. M I의 줄거리 꾸미고 이야기로 옮기는 작업이 포함된다. 여기에 허구개념이 개입하는 것은 장르의 규칙을 따른다는 점, 가정법을 동원한다는 점 등으로 설명된다. 현실에 대해 '가정'을 함으로써 현실의 불협화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미메시스II는 '마치 ~같은 것(comme si)'이라는 허구를 동원함으로써 '허구의 왕국'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은 줄거리의 매개를 통해서이다. 줄거리가 매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개인적 일상사[사건]와 전체로 구성된 스토리 사이를 매개한다. 개인적인 일상에서 겪는 사건은 단편적이고, 탈맥락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완결성을 지닌 스토리[이야기-서사]가 될 때, 줄거리가 매개역을 하게 된다. 하나의 소설[이야기] 속에는 잡다한 것들이 포함된다. 또한 이질적인 것들이 공존한다. 이들 이질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줄거리의 역할이다. 이 지점에서 형상화와 줄거리는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된다.[29] 이야기의 시간적 특성은 이질

---

28) 이와 관련해서는 P. Ricoeur/김한식 역(1999: 128, 147, 159)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이야기'라고 번역되는 용어는 불어의 récit인데, 서사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서사물 일반을 가리킨다.

적인 것의 종합 능력으로 서사의 可能性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인간의 시간체험과 연관된 대부분의 내용이 포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의 틀에 「황제」는 적실하게 들어맞는다. '황제'의 글읽기와 글쓰기가 작중인물의 서사적 동일성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사텍스트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작중인물이 수행함으로써 서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현실 독자의 독서에 대해 다른 층위의 텍스트를 형성하게 된다. '황제'의 시를 이용한 화답이라든지, 생애 말기에 남기는 '고유문' 등이 황제의 글쓰기 예에 해당한다.

서사는 텍스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독서를 통해 구체화되고 문학사적인 맥락에 편입되어 들어온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해석학의 전제와 연관되는 사항이다. "더 많이 설명하는 것이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글쓰기 과정에서 괄호쳐 두었던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에 해당한다. 재형상화(refiguration)-M Ⅲ-는 텍스트를 통해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을 뜻한다. 이 때의 현실은 하나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것은 텍스트 세계와 독자 세계의 교차점이 된다. 이는 독자가 이야기를 풀어 삶의 뜻을 이해하는 일이다. 다시, 이는 잠재적 현실 혹은 허구를 개입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가능성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나에게, 세계란 내가 지금까지 읽고, 이해하고, 사랑해온 모든 텍스트, 기술적인 것이든 시적인 것이든, 그 모든 텍스트가 열어주는 지시들의 총체이다. 그리고 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리들의 환경(Umwelt)으로부터 하나의 세계(Welt)를 만들어내는 모든 의미작용을 우리의 상황에 대한 술어들 속에 끼워 넣는 것이다(P. Ricoeur/김윤성 역, 1998: 74)."[30] 텍스트가 존재의 지평을 열어

29)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처럼, 파불라에 대한 sujet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30) 이는 "어떤 스토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줄거리의 유형론을 낳는 문화적 전통과 동시에 '행동'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P. Ricoeur/김한식 역, 1999: 133)."라고 하는 이해의 복합성에 연관되는 점이다.

주도록 하는 행위, 그것이 재형상화라는 것이다. 「황제」는 전체 구조가 리쾨르가 상정하는 서사실천의 구조와 닮아 있다.

미메시스Ⅲ은 독자의 수용과 재창조 영역과 연관된다. 여기서 독자의 텍스트 수용 문제를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자가 수용하는 것은 단지 작품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가로질러 작품의 대상 지시, 다시 말해서 언어로 옮겨진 경험이며, 궁극적으로는 작품이 그 앞에 펼쳐 놓는 세계와 그 시간성인 것이다(P. Ricoeur/김한식 역, 1999: 173)."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허구 서사의 경우 '지시'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허구적 서사 가운데 나타나는 사실세계, 실제세계의 지시물들은 현실이라는 용어로 포괄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허구적으로 구성된 지시체(지시물)는 그 자체가 텍스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허구의 허구라는 도식이 된다. 따라서 그것은 현실에 대해 매우 위험한 텍스트가 될 수도 있다. 「황제」에서 '망집'이라 할 수 있는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허구란 바로 언어로서 이러한 최고의 위험을 만들어내는 것"- 도덕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에 맞서 들이대는 전복적 메스가 된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상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행동은 상징적으로 매개된다(앞의 책, 134쪽)." 이렇게 상징적으로 매개되는 독서는 '황제'의 서사적 정통성과 연관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본다면 「황제」는 한국 근대사를, 전통의 맥락에서 근거를 마련하여 다시 쓰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는 한국 근대사 다시쓰기에 해당하고, 독자는 한국 근대사 다시읽기를 수행하게 된다.

글읽기와 의식의 형성

소설의 허구성은 메타픽션의 양식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메타픽션은 소설 안에서 소설의 문학성과 장르적 속성, 소설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등을 검토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산문문학으로서 소설이 글쓰는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소설 작중인물의 글읽기와 글쓰기는 메타픽션의 원리를 소설 창작의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P. Waugh/김상구 역, 1992).

소설의 작중인물이 글을 읽는 이야기는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돈키호테』에서 그러한 선례를 볼 수 있고, 「황제」의 경우 『돈키호테』의 패러디라 해도 좋을 만큼 작중인물의 글읽기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여 다루고 있다.[31] 이는 근대의 풍속 혹은 문화로서의 글읽기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근대라는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소설은 그 속성이 대중성을 띠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성을 『돈키호테』나 『보바리 부인』은 책읽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황제」의 경우는,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역방향의 대중성을 추구한다. 즉 그가 읽는 책들이 '황제의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 소설이 의존하고 있는 책은 「정감록」이다. 「정감록」은 조선 중기부터 내려오는 도참사상과 비기의 성격을 지닌 예언서의 일종이다. 「정감록」은 소설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고, 소설 해석의 '전거'가 되기도 한다.

공부과정에서 글읽기를 통해 접하는 책들은 황제의 의식을 강화하는 기제가 된다. 이는 텍스트에 나타날 때는 典故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전고는 '황제'의 화법 기본을 이루기 때문에 낱낱이 예를 들기 번거로울 정도이고, '황제'가 학문적으로 어떠했는가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

31) 『마담 보바리』 같은 경우도 소설 읽기가 하나의 현실로 소설에 삽입되어 있는 좋은 예이다. 소설이 근대적 문화의 양식이고, 소설이라는 텍스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되는 인간상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의 형식, 독자의 심리, 사회의 성격 사이에 상동적 관계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황제의 학문적인 성취는 정통의 유학을 위주로 한 것이었다. 실록에 따르면, 황제는 일찍이 정주(程朱)의 성리학에 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양명(王陽明), 육상산(陸象山)이며 황종희, 고염무의 주장 또한 소홀히 넘기시지 않았다. 그때 겨우 열여섯이었음을 상기하면 실로 놀랄 만한 학문이었다. 그러나 또한 황제는 한낱 유생에 그친 것은 아니어서 손오(孫吳)에 이르어 용병(用兵)의 묘(妙)에 통했고, 순경(荀卿) 한비(韓非)에 이르러 법치의 이(理)를 깨달았다. 노장(老莊)은 후년에까지도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묵적(墨翟) 공손룡(公孫龍), 추연(騶衍)에 이르러서도 두루 막힘이 없었다. 군자는 두루 있고 한곳에 치우치지 않는다[周而不比]란 말은 정녕 그를 두고 이름이리라(권1, 58쪽).

이후 황제가 인용하는 전적은 『맹자』, 『손자』, 『회남자』, 『노자』, 『尙書』, 『장자[남화경]』, 『좌전』, 초사, 唐詩를 비롯하여, 각종의 비기와 역서, 도참서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폭넓다. 이는 '책'이 황제의 의식을 結晶하는데 기여하는 준거들이다. 시문으로 수작을 하는 장면의 교양(권1, 122쪽) 이라든지 빈번하게 나타나는 중국의 고사 인용 등은 이 작품의 특징적 문체를 이룰 정도이다. 근대문명을 비판하는 전거 또한 노자의 『도덕경』이다. "도덕경에 이르기를, 백성의 헛된 욕심을 돋우는 편리한 물건이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진다고 했거니와 이는 대개 사람의 지식이 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고통과 죄악도 커진다는 뜻이 되겠다."(권1, 136~137쪽) 이러한 비판은 실학파의 학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 비록 이씨(李氏)의 원·건릉(元·健陵=英正祖) 간에 이르러 한 무리의 몰락한 선비들이 실학(實學)이다, 북학(北學)이다, 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으나 다시 살펴보건대 그 또한 공맹(孔孟)에 바탕한 한 갈래의 공리공론에 지나지 않았다. 반계(盤鷄), 성호(星湖), 다산(茶山)은 방대한 저술로 현실의 개혁을 부르짖고 순암(順庵), 연려실(燃藜

室), 옥유당(玉蕤堂), 냉재(冷材) 등은 지난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려 했으며 초정(楚亭), 담헌(湛軒), 형암(炯庵), 연암(燕岩) 등은 우수한 청(淸)의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역설했지만, 심란한 것은 그들의 논고(論考)일 뿐, 끝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세상이 그들 편에 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마저도 실제적인 경륜과 과감한 개혁 의지가 부족했던 때문이다(권1, 152-153쪽).

예수교에 대한 비판 역시 작중인물이 읽은 전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닌가, 거기서 황제는 전에 없이 강한 호기심이 생겼다."(권1, 164쪽)고 되어 있는데, 이는 르네 지라르가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주장하고 있는 심리적인 모방의 사례라는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이 작품이 근대의 비판이란 의미를 지니게 되는 전거에 해당한다.

사람을 평하는 잣대 또한 전거가 '책'과 '글씨'로 되어 있다. 신기죽을 만나 그가 읊은 초사 한 구절을 듣고, 그를 기용하기 위한 인물평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가 비록 배운 것은 없으나 낮에 선생의 필법을 보니 해서(楷書)는 안(顔)씨의 근례비(勤禮碑)에서 체를 받았으나 오히려 힘차고, 행서(行書)는 황산곡(黃山谷)의 송풍각시권(松風閣詩卷)의 풍이 있으나 오히려 더 기이하였소이다(권1, 175쪽)."

이 작품에서는 글쓰기 또한 의고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서술자는 이 글에 대해 황제에게 적대적인 이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다시 황제를 위한 시각으로 평가함으로써 다른 층위의 역시각(la vision contraire)을 만들어 이중의 비판을 이끌어낸다.

이 『권북천표(勸北遷表)』에 대해서도 황제의 적대자들의 견해는 지나친 데가 있다. 황제를 편집광으로 모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기죽 역시 알코올

> 중독에 기인된 과대 망상증 환자로 보는 그들은 이 「권북천표」를 그 증거로 들고 있다. 합리적이란 수식의 그 왜소한 사고에 어찌 신기죽의 웅대한 포부와 기개가 이해되기를 바라겠는가(권1, 188쪽).

「황제」에 나오는 인물들은 황제를 비롯하여 그의 신하라고 하는 이들 모두가 글에 미친 이들이다. 글을 통해 자신의 의식을 한 방향으로 부단히 강화해가는 것이 이들의 글읽기 방식이다. 잘못된 글읽기가 사람의 의식을 왜곡하고, 그것이. 왜곡된 의식을 공유하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일종 '상상의 공동체' 안에서 제반 행동이 일사불란하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는 텍스트연관성이 밀도있게 구축되어 있지만, 바흐찐의 의미로 대화적 소설이라 하기는 어렵다.

소설에서 "대화적 관계란 상이한 견해가 상이한 주체에 의하여 두개의 상이한 발화 속에 담겨져 하나의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질 때 형성된다(서정철, 2002: 362)." 이는 바흐진의 개념으로는 언어학의 지향점을 종단언어학(translinguistique)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바흐찐은 실체로서의 소설에 나오는 모든 언어가 대화적이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다만 현대의 화용론(pragmatique)에 적용되는 원리와 유사한 방법으로 언어가 운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이다(앞의 책, 360쪽). 「황제」처럼 서술자의 서술적 권위가 전면적일 경우, 대화적 관계는 서술상에 나타나기보다는 층위와 층위를 겹치는 허구적 구성 방법으로 드러난다. 그런 뜻에서 "중요한 것은 순수한 언어학의 기준에 의하여 포착할 수 있는 개인어나 사회어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작품 안에서 서로 대립적이고 나란히 놓여 있는 말들을 포용하고 있는 대화적 관점이다(앞의 책, 361쪽)." 이러한 관점은, 거듭하거니와, 허구의 중첩이라는 방법으로 구체화된다.

서술상에서가 아니라 텍스트와 텍스트의 층위를 겹쳐 놓음으로써 텍스트상의 대화관계가 성립될 때라야 개방텍스트가 되어 글읽기와 글쓰기가

(lecture / écriture)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읽기와 쓰기의 통합을, 허구 개념[상상력]을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재조정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나 「황제」는 대화적 관계를 거부한다. 인물로서 '황제' 자신은 서사적 정체성을 부단히 만들어 가면서, 세계[현실]와의 대화는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황제」는 이처럼 서사적 정체성의 형성과 거부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근대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고, 독자의 독서 과정에서는 '탈근대적'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현대 혹은 근대라는 시대에 「황제」를 내세움으로써 텍스트의 안과 밖을 대화관계로 맞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다면성의 용광로 한 가운데서 독자는 '주체성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는 이중화된 허구를 자신의 안으로 이끌어들여 문화적 실천을 감행하게 된다. 그런데 「황제」의 이야기가 '실록'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해서 '황제'의 책읽기, 그리고 황제의 글쓰기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의 전과정이 그렇게 구체화되기 때문에, 한 인격체의 자기형성에 하나의 전범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V. 소설의 허구성과 소설에 대한 가치평가

이 글은 「황제를 위하여」를 대상으로, 소설의 허구성과 그것의 인식이 문학교육에 어떤 효용을 가지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텍스트의 특성으로서의 허구성을 아는 것은 지식 차원에서 교육적 효용이 있다. 소설의 독서에서 허구성을 인식하고 그 장치를 아는 것은 작품의 해석으로 연결된다. 작품의 해석은 삶의 가치를 문제삼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이 된다. 독자는 문화적 실천의 국면으로 자신

을 이끌어들여 그 가운데서 허구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서사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문학교육은 허구적 상상력의 관습에 익숙해지기를 도모하는 일이다. 문학은 문화적 관습으로 형태화되어 존재한다. 관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재생과 변형을 지속해가는 문화내용이다. 허구이면서 진실을 발굴하는 체험과 인식의 도구라는 두 가지 역할의 동시성이 독자의 내면에서 폭발하여 형성되는 것이 허구서사 읽기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다소 반복되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소설에 대한 가치평가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살피기로 한다.

1. 텍스트 구조/해석 원리로서 허구

시점의 전환 가능성 - 인식의 확대

우리는 앞에서 허구가 하나의 관점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도 발생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런 관점은 대상을 역전시킨다. 독자들에게 「황제」는 망집에 사로잡힌 인간의 환상을 다룬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거기서 황제의 기표는 양면성을 지닌다. 미친놈/황제인 것이다. 그러나 '황제' 편에서 보았을 때 현실은 다른 의미의 환상이 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기로 한다.

> 우리의 황제에게는 남한 역시 한 반적(叛賊)에 불과하고, 실록도 남비(南匪) 또는 백적(白賊)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이왕에 이 글이 그런 황제에게 바쳐지는 이상 마땅히 그렇게 불러야 하나, 우리가 그 법과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국가의 신성과 존엄을 위하여 여기서는 다만 남당(南黨) 정도로

만 완화시켜 부르기로 한다(권2, 133쪽).

여기서 서술자의 시각이 황제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현실에 닿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서술자의 이러한 시각은 다음과 같은 데서 확연해진다.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하고, '제국주의 타도의 선봉'이 되기를 주장하는 이현웅에 대해 이런 비판이 가해진다.

> 이형의 유물사관(唯物史觀)이나 그분의 천명(天命)이나 그것이 어떤 필연성에 의지하고 있는 점에는 똑같은 발상이 아니겠소?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이형의 신념과 정열이나 그분의 정감록에 대한 믿음과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이나 또한 크게 다를 게 무엇이겠소?(권1, 280-281쪽)

이는 허구적 상상력으로 현실을 대질할 경우라야 도달할 수 있는 비판이다. 이를 두고 인식의 확대라면 좀 순진한 해석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성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허구적 의미작용의 과정에 독서주체를 밀어넣어보는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지 독서의 과정에 참여하였다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성을 체험하여, 주체성을 생산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형식도 자신의 형성과정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는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 즉 과정은 그 자체 닫힌 보편적 코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탱하는 배치와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작동시키는 기초적 재료와 불가분하다(F. Guattari/윤수종 역, 2003: 62-63)." '배치'와 '재료'를 연결해 주는 힘, 혹은 그러한 작용을 불러오는 근원적 에너지는 허구에서 온다. 그것은 '주체성의 생산'으로 개념화되는 주체의 역동적 자기생산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기표와 기의의 양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 재료와 형식을 주체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그 관계설정의 기구는 허구개념이다.

소설[문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화문법이 의의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문화실천의 재료와 형식을 동시에 이끌어오기 때문이다. 문화문법은 범위를 좁히면 서사문법이라 할 수 있다. 단일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앞에서 설명한 과정은 서사문법의 획득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황제'의 부친이 古鏡고경을 얻고 거기 적힌 「정감록」의 예언 내용에 촉발되어, 황제의 꿈을 지니게 되는 내용 뒤에 이어지는 것은 '실록'의 춘추필법이라 할 만하다. 사실을 제시하고, 다른 시각을 첨부한 다음 사관의 견해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텍스트가 서술되어 있다.

하늘이 준비한 고경을 받았다는 사실을 두고, "그런데 어떤 이는 말한다. 조작이라고." "또 어떤 이는 말한다. 정여립의 위작이라고." 이에 대한 서술자[사관]의 평은 이렇게 되어 있다. "슬프다, 대개 세상 사람들의 소견과 지각이 그러하니 종내 새 하늘이 열린 것을 알지 못하고 황제를 외로움 속에 붕(崩)하시게 하였다(권1, 30쪽)." 이러한 서술법은 황제의 장인이 되는 황진사란 인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황 진사를 이해하기 위해 그가 서른에 가까워서야 얻은 진사 벼슬에 대해 잠깐 살펴보는 것도 한 가닥 도움이 될 것 같다. 역시 황제에 대한 악의의 연장이겠지만, 그가 족보보다 소중히 모시고 있는 쇠가죽 제수장(除授狀)은 기실 소과에 열몇 번이나 낙방한 끝에 세도가인 안동 김씨 사랑방에서 만금(萬金)을 주고 산 것에 불과하다는 이설(異說)이 있기 때문이다(권1, 62쪽)."

이러한 서술법은 독자가 지니고 있는 문화자본으로서 '재료'이면서 독자가 자신을 자신으로 유지하면서 소설을 읽어 나가는 과정을 형성하는 문화체험 그 자체인 것이다.[32] 이 문화체험이 허구적 인식의 공간에서 이

32) 이를 가타리는 '배치'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이는 "기계장치들이 결합되어 일체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구조, 체계, 형식, 과정 등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배치는 생물학적, 사회학적, 기계적, 영적, 상징적인 구성요소들뿐만 아니라 이질발생적

루어진다는 점, 상징의 수용과 생산이 한 주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논리의 일방성 혹은 양분성을 지양할 수 있게 한다.

역사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이다. 황제가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 듣고, 상해에 가고자 하자 이를 만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앞에서 본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유지된 점이라 하겠다.

> "그들은 양이(洋夷)의 법제를 흉내내어, 왕(王)이며 삼공(三公)을 폐하고 자기들끼리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니 해서 나라를 멋대로 꾸몄습니다. 이미 그렇게 딴 마음을 드러냈으니 절대로 주군(主君)을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뒷날 나라의 기틀이 잡히면 마땅히 토멸해야 할 난세의 군웅(群雄)들이매 오히려 주군을 해할까 두렵습니다." 그것이 미숙아의 설득에 넘어간 신기죽의 만류였다(권1, 193쪽).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개진한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시각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독자의 내부에 형성된 관점을 전환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관점을 생산하는 주체가 된다.

> "그렇다면 이 일을 꾸민 자들은 상해 어디선가 임시정부를 꾸미고 있다던 그 민주(民主) 패거리임에 틀림이 없다. 허울 좋게 백성의 이름을 빌어 천명을 넘보는 자들이다. 잘 돼 간다. 북쪽 패거리들은 재물을 가지고 내 백성을 꾀고 남쪽 패거리는 명분으로 내 백성을 꾀니 머지않아 이 땅에 피바람이 일겠구나(권1, 81쪽)."

앞에서 말한 '새로운 관점을 생산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건을

인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F. Guattari/윤수종 역(2003: 27-48, 54-95)을 참조할 수 있다.

달아 놓을 필요가 있다. 세계를 주관에 따라 해석하고 평가하는 주체가 아니라, 대상과 자아를 동시에 초월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스스로 대상과 더불어 변화를 수용하는 그러한 주체를 상정한다는 점은 의미깊다. 이러한 구도라야 교육의 과도한 목적성으로 인한 주체의 경직성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인식과 허구적 욕망 - 삶의 가치

소설이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평범함으로 돌아가, 허구의 기능을 살펴보기로 하자. 「황제」는 정감록의 예언을 '천명'으로 실현해가는 한 인간의 완성 과정을 다루고 있다. 완성이라는 점에서 루카치가 환멸의 낭만주의 소설이라고 규정한 『돈키호테』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의미있는 삶, 의미의 확충 등 그런 가치를 상정할 수 없는 시대에 그러한 욕망을 지닌다는 것은 망집에 스스로를 맡기는 일이 된다. 그것은 「황제」 곳곳에 나오지만, 과대 망상에 사로잡힌 인간으로 '황제'가 규정된다.

그런데 「황제」가 왜 일대기(一代記)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마디로 서사적 완결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사적 완결성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현실과 대비할 때, 리얼리티는 감소한다. 리얼리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현실에 대한 '허위 보고'를 면치 못한다. 그러나 인간의 완성이라는 주제를 허구의 층위에 설정함으로써, 독자의 역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 이 소설의 가능성이다.

그 역능의 극대화에 작용하는 것이 문학능력으로서 허구적 상상력이다. '황제'는 어디에 쓰나 하는 물음에는 자기 완성의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델이 현실성을 지닐 수 없음은 물론이다. 다만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이를 충성과 배반, 모략

과 예지, 부모와 자식, 의무와 책임 등이 항목으로 양분하지 않고 허구의 층에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황제」의 장점이다. 이는 이전의 용어로 말하자면 리얼리티의 획득이라 할 수 있다.

그 리얼리티 가운데 '유머'가 포함된다. 유머로 상황 넘어서기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데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왕자의 존재 근원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 황제가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셋째를 뜯어보자 찔끔하던 황씨 부인이 기어드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
> "이 아이는 오 년 전 겨울에 다녀가셨을 때……"
>
> 그렇게 말하는 황씨 부인과 황제를 번갈아 바라보는 정처사의 눈길은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하였고, 그 곁의 우발산은 왠지 묘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송구한 듯 목을 움츠렸다.
>
> "왜, 생각 안 나느냐? 그 뒤로도 몇 번 다녀갔다면서……"
>
> 정 처사가 여전히 탐색하는 눈길로 황제의 표정을 살피며 따지듯 물었다. 너무도 창졸간의 일이라 멍청해진 황제가 얼떨결에 대답했다.
>
> "아, 그거……"
>
> 이도 저도 아닌 대답이었지만. 그 말을 듣자 함께 온 흰돌머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
> "축지법을 써서 하룻밤에 만리 길을 오간다더니 정말이었군. 그렇지만 정말 무정하십니다. 그렇게 옆집 드나들 듯 하면서 우리에게는 얼굴도 한 번 안 내밀다니(권1, 254-255쪽)."

소설의 근원적인 물음은, 그것이 허구적 장치[기계-상상력]를 구사하여 제기되는 경우는 '정념적 지식'과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지만,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존재 근거에 대한 물음이다. 이 존재근거가 허구를 통해 마련된다는 것은 소설의 진실 가운데 가장 깊은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러

나 이는 사실 세계의 감각과 무관한 것일 수 없다. 허구 속에 자리잡는 진실이 그러한 것일 터인데, 다음 예에서 그러한 점을 확인하게 된다. 허구 안에서 형성되는 리얼리티는 정서적 충일감. 완성의 느낌을 동반한다. 이는 부정과 결핍의 문화 관념에 대한 극복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이는 가타리 식으로 '미래를 향하는 무의식'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설명될 만하다. 아들의 행방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황제'와 '황후'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보여주는 태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그런데 참소하는 무리의 말을 믿으시어 이 몸을 의심하시니 참으로 원통합니다"
>
> "태자가 한 달 전에 다녀가기라도 했단 말이냐?"
>
> "차라리 자진하여 이 몸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
> "배공(裵公), 내 잘못했소. 참소하는 무리의 말을 그릇 믿었는가 보오. 공의 선고(先考)는 이미 동북(東北) 시절부터 나의 상민(上民)이요, 지하에 들어서는 정북장군(征北將軍) 호남후(湖南侯)를 추증(追贈)한 바 있소. 내 어찌 공을 의심할 리 있겠소? 그래, 공은 태자를 만나셨소?" 드디어 황제의 목소리는 사정 조가 되었다. 의명왕후(懿明王后=황씨 부인)도 부엌에서 배대기의 말을 듣고 주르르 달려나와 울며 물었다.
>
> "배 서방, 그래 우리 아들 휘(煇)가 정말로 살아 있수? 그 애를 보았수?" (권2, 161쪽)

이러한 허구 속의 진실이 아니라면, 허구와 실재의 변증적 현현이 아무리 잘 그려져 있다고 해도 '실감'은 클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실감이 허구적 상상력의 자료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소설의 '주체성 생산'에 기여하는 월등한 역능이라고 할 수 있다.

Ⅵ. 허구성의 인식능력-실천의 논리

허구적 인식능력이 문학교육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하는 논의를 위해 다소 먼 길을 외돌아 왔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소설이 현실을 반영하고, 의미를 소통하는 장치라는 통념을 벗어던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허구적 인식능력의 실천 구조를 찾아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

문화를 상징적 교섭작용으로 규정하고 문학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문학문화에 입문하고 그 안에서 문학문화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문학교육이라는 논지를 전개한 적이 있다(우한용, 1997). 그러나 실천 개념은 분명하게 규정하지 못했고, 그것이 문화 창조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또한 선명하지 못했다. 이제까지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를 중심으로 허구성과 허구적 인식의 문제를 검토했다. 이 지점에서는 문학교육을 문화생산으로 보려는 논지를 약술하여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 개인이 문학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문학교육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능력과 수행은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행의 측면을 고려해야한다. 수행의 의의에 대해서는 공감이 널리 이루어져 있다. 그 수행이 문화주체인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의미가 적다. 문화는 개인이면서 집단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문화가 수행되는 특성 가운데 '자기생산'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문화현상 일반이 그러하고 예술현상이 그러하듯이 소설은 '자기생산'을 계속하는 체계로 유지된다는 점 때문이다. 앞의 논의에서 설명이 되었듯이, 소설은 이전 텍스트에서 주체를 거쳐 다른 텍스트로 전이되는 양상으로 '살아간다'. "기계 자체는 자신의 생산물에 의해 생산된다(F. Guattari/윤수종 역,

2003: 50)."는 논리를 가감없이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문화현상에서 능력과 수행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전제를 수용한다면, 소설은 무의식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무의식은 프로이트 식으로 인간의 내면에 규정할 수 없는 무엇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제반 조건에 관여적으로 구성된다. "집합적 언표행위 배치는 사물의 상태, 사실의 상태, 주체적 상태 자체에 대해 말한다(앞의 책, 31쪽)."

소설이라는 무의식은, 가타리 식으로 말하자면 '소설기계'라 할 수 있다. 기계는 무의식을 뜻하는데, "무의식은, 개인의 내부에서 그 사람이 세계를 지각하거나 자신의 신체나 자신의 영토나 자신의 성을 체험하는 방식에서뿐만 아니라, 부부나 가족이나 학교나 이웃이나 공장이나 경기장이나 대학 등의 내부에서도 작동한다(앞의 책, 9쪽)." 독자가 소설을 읽는 행위, 작가가 소설을 쓰는 행위 속에는 이러한 무의식이 작용하고, 그러한 무의식을 생산한다. 무의식이 작용하는 방식이 '자기생산'의 특성을 지닌다는 것은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소쉬르의 언어이론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구조주의의 전제인 기표와 기의 양극체제는 수정되어야 한다. 촘스키의 보편언어론 또한 극복의 대상이 된다. 기표와 기의의 이분법을 벗어나는 일은, 문학교육에서 내용과 표현, 현실과 반영, 작가와 독자 등의 이분법을 벗어나 사고할 수 있게 해 준다. 소설의 자기생산성(autopoiesis)에 바탕을 두고 본다면, 소설은 새로운 소설을 만드는(생산하는) 재료 역할을 한다. 아울러 그것은 자기생산의 과정이기도 하다. 소설 무의식의 과정에 주체가 포함되어 들어감으로써 이는 문화적으로 현동화된다. 문학현상의 주체는 문학을 수용하면서 문학을 생산하는 무의식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가타리는 "무의식은 우리의 현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체에, 우리의 사회관계에 붙어서 움직이는 것"이며, 무의식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재료"이며, "행동에 붙어서 행동의 방향을 수정해 갈 수 있는 시각적, 음악적 구성요소들을 지닌" 구체성을 띤 것이라고 본다. 이 맥락에 문학을, 소설을 대신 대입해도 논리가 막히지 않는다. 여기서 허구성의 문제를 같은 맥락에 놓고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가타리는 이렇게 설명한다. "무의식의 영역은 분리, 지층화 및 분절성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접속의 모든 가능성의 장소이다. 만일 무의식 구성체에 관한 분석과 실천과 사회구성체의 정치적 실천 사이에 융합이 없다면, 동일한 태도, 동일한 도그마적 집착, 동일한 위계들, 동일한 배제 및 지배 조건이 끝없이 일어날 것이다(앞의 책, 13쪽)." 여기에 허구성, 허구적 인식을 대치하고 생각한다면, 허구적 인식의 전면적 작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허구성은 기표와 기의의 양분법적인 방식으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 인식과 행동의 자기생산 기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해야 옳다. 따라서 허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소설을 이해하는 방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허구적 인식 속에 '사실의 허구적 감싸기'를 다시 감싸 넣는 방식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관점 세우고 바라보기'라든지 '해석의 관습 창조' 등에서 주체가 허구적으로 생산되고 그 주체는 다시 허구와 사실을 감싸는 정신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은 인식과 실천의 가능역을 확대하는 일이 되고, 따라서 문학교육의 생산론적 입론 가능성을 열어준다. 허구적 인식이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것을 감싸 안아 사유의 공간으로 이끌어들이는, 사유에 대한 사유의 실천이 문학교육의 생산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의 결과를 형상화한 소설이 매개가 됨으로 해서 '미래를 향하는 무의식', '건설과 창안'을 지향하는 무의식이 주체의 내면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문학교육의 과업이 된다.

건설과 창조를 지향하는 무의식을 어떻게 '정념적 지식'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유보사항으로 둘 수밖에 없다. 이는 언어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 하나의 방법론을 수립해야 입론이 가능한 영역이다.*

[주제어] 허구적 텍스트, 허구적 상상력, 의미의 구성, 텍스트 생산, 문학교육의 생산성

* 본 논문은 2004. 12. 18. 투고되었으며, 12. 20. 심사가 시작되어, 12. 24. 심사가 종료되었음.

자 료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제1~2권), 민음사, 2001.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제3세대 한국문학>, 삼성출판사, 1983.

참고 문헌

교육인적자원부(1997),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1997.
김윤식(1981), 『한국현대소설비판』, 일지사.
김춘진(2004), 「보르헤스의 돈키호테 읽기」, 『문학과 사회』, 가을호.
박희병(1997),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서정철(2003), 『인문학과 소설텍스트의 해석』, 민음사.
석경징 외(1997), 『현대 서술이론의 흐름』, 솔.
우한용(1993), 『채만식 소설 담론의 시학』, 개문사.
우한용(1997),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출판부.
우한용 외(2001),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이정우(2003), 『사건의 철학』, 철학 아카데미.
조남현(2004), 『소설신론』, 서울대출판부.
최병우(2004), 「서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고찰」, 『현대소설연구』9월호.
Bahktin, M. M., *The Dialogic Imagination : four essays*, edited by Michael Holquist, translated by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1981), University of Texas Press.
Booth, W., *The Rhetoric of Fiction* / 崔翔圭 譯(1985), 『小說의 修辭學』. 새문社.
Bourdieu, P., *Les Règles de l'art* / 하태환 역(1999), 『예술의 규칙』, 동문선.
Chatman, S., *Story and Discourse* / 한용환 역(1989), 『이야기와 담론』, 고려원.
Frye, N.(1957), *Anatomy of Criticism : four essays*, Princeton University Press.
Genette, G., *Figures III* / 권택영 역(1992), 『서사담론』, 교보문고.

Girard, R., *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 / 김치수 · 송의경 역(2002),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Guattari, F., *Chaosmose* / 윤수종 역(2003a), 『카오스모제』, 동문선.

Guattari, F., *L'inconscient machinique : essais de schizo-analyse* / 윤수종 역(2003b), 『기계적 무의식』, 푸른숲.

Hobsbawm, E. J., *On History* / 강성호 역, 『역사론』, 민음사.

Hochman, B.(1985), *Character in Literature*, Cornell University Press.

Hutcheon, L., *A Theory of Parody* / 김상구 · 윤여복 공역(1992), 『패로디 이론』, 문예출판사.

Lukács, G., *Die Theorie des Romans* / 반성완 역(1998), 『소설의 이론』, 심설당.

Olsen, S. H.(1987), *The End of Literary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coeur, P., *Temps et récit I* / 김한식 외 역(1999), 『시간과 이야기1』, 문학과 지성사.

Ricoeur, P., *Temps et récit II* / 김한식 외 역(2000), 『시간과 이야기2』, 문학과 지성사.

Ricoeur, P., *Temps et récit III* / 김한식 외 역(2003), 『시간과 이야기3』, 문학과 지성사.

Ricoeur, P., *Interpretation theory :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 김윤성 역(1998), 『해석이론』, 서광사.

Ray, W., *Literary Meaning* / 임명진 역(1988), 『문학의 의미』, 신아출판사.

Veyne, P., *Comment on écrit l'histoire* / 이상길 외 역(2004),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 새물결.

Waugh, P., *Meta-fiction* / 김상구 역(1992), 『메타픽션』, 열음사.

■ Abstract

On the Fictional Ability for Literary Education

WOO, HAN YONG

For reaching the goal of authentic appreciation for any fictional text, it is needed for the reader to operate some kinds of cognitive ability for it. One of the abilities for understanding the fictional text is the fictive imagination, that connecting the facts in or out of the text and fictive elements in novelistic text. In this paper, a novelistic text shall be analysed "For My Emperor" by Rhee Moon Yeol. The main trait of this novel is that it is situated in the mode of alternative history.

For the appreciation of this novel, the reader must have some preunderstandings about Korean modern historical context, and they also connected with the contexts that the novelist framed in the novel. The connection between the historical context and fictional context, that is the basic cognitive structure for the understanding of fictional text. With fictional devices and imaginations, the writer construct an alternative world in the text.

In the field of literary education they presupposed the appreciation and reception of the text as a kind of reconstructing the meaning in the cognitive sphere of the subject, which is considered as an interac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text. In the context of meaning construction by the subject, in two levels, as a reader he construct the meaning of the text, as a writer he makes the works of literary art. All the readers of the text they have the potentialities to become producers of literary work of art.

With fictional imagination, the readers of the novel they participate in the fictional narrative context and they make activate the textual power in the context of the real world or real life. To attain the ability of fictive cognition through reading process and to strengthen the fictive imagination in it, they are supposed as ultimate goals of literary educations.

[Key Words] Fictional text, Fictional imagination, Construction of meaning, Producing the text, Productivity of literary education